

전기차/배터리

그린산업/ESG 한병화
bhh1026@eugenefn.com

유럽, 중국산 전기차 수출 장벽 확장, K 배터리 수혜

“ EU, 중국산 하이브리드 수출 대수 제한하기로 합의

EU는 중국에서 제조되어 수출되는 일반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 연간 수출대수를 4년간 50% 이상 축소하기로 합의. EU는 2024년 10월 30일부터 중국 순수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 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 차량에 대해서는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해 왔음. 이에 중국업체들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위주로 수출을 늘리면서 유럽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급격히 높이고 있는 상황. 중국업체들의 유럽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점유율은 2024년 10월 3.5%에서 2026년 8월에는 25.5%로 급상승한 상태. 이에 따라 전체 차량 판매에서도 점유율이 11.7%까지 높아짐. EU뿐 아니라 영국도 중국업체들의 시장 잠식이 빨라지면서 EU와 같은 중국산 차량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

“ 중국, 전기차 내수 부진과 공급과잉을 해외 수출로 밀어내고 있어

중국 전기차업체들의 수출 증가율은 내수 대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었지만, 특히 작년부터 내수 부진을 수출로 만회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중국 업체들의 전년 동월비 내수용 도매 판매 증감율은 2025년 11월부터 역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수출대수 증감율은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 자국내 공급과잉을 해외로 돌리면서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의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 이에 미국뿐 아니라 EU, 영국, 일본, 대한민국 등도 중국발 공급과잉에 대해 대응하는 정책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향후 자국내에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들은 중국의 수출에 대한 장벽을 세우는 것이 일상화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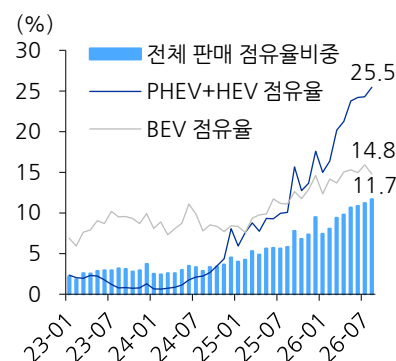
“ K배터리에게는 유럽의 중국 장벽 확대가 긍정적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지난 해부터 재성장세로 전환되었고,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도 20% 이상의 판매 증가가 예상되에도 불구하고 K배터리가 개선되지 못했던 이유는 중국산 전기차 수출 증가 때문. 특히 중국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수출 급증이 가장 큰 교란 요인이었는데, 판매 대수가 축소되면 K배터리 장착 차량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져. 또한 내년 초에 확정될 산업 가속화법은 초안에서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모든 전기차는 차량 부품의 70% 이상을 역내와 FTA 국가 등에서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는 셀 포함 주요 소재/부품 3개 이상, 3년 후부터는 5개 이상의 원산지 증명을 해야함. 역내에 전기차용 배터리 셀, 소재/부품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FTA 국가인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는 중국과의 경쟁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미국 BESS 시장의 확대에 이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전환,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 바닥 탈출까지 2027년은 K배터리에게 제 2의 전성기에 진입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

업종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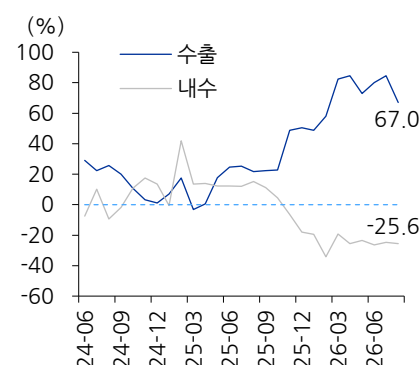
OVERWEIGHT

중국의 유럽 완성차 월별 점유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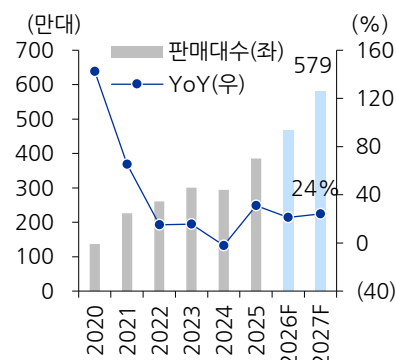
자료: Data Force, 유진투자증권

중국 전기차 내수와 수출 전년동월비 증감율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유럽 전기차 연간 판매량 예상



자료: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도표 1.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

(천대)	2022A	2023A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북미 전기차 판매량	1,042	1,621	1,841	1,651	1,380	1,620	1,922	2,412	3,111
미국 전기차 판매량	918	1,436	1,570	1,474	1,183	1,397	1,659	2,089	2,715
YoY(%)	51.2	56.3	9.3	-6.1	-19.7	18.0	18.8	25.9	30.0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6.7	9.3	9.9	9.0	7.1	8.2	9.6	11.8	15.1
캐나다 전기차 판매량	124	185	271	177	197	223	263	323	396
아시아, 대양주 전기차 판매량	6,271	8,574	11,644	13,529	14,810	17,045	19,340	21,430	23,236
중국 전기차 판매량	5,924	8,095	11,156	12,842	13,933	15,961	17,997	19,770	21,174
YoY(%)	83.7	36.6	37.8	15.1	8.5	14.6	12.8	9.9	7.1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	22.1	26.9	36.0	40.2	42.4	47.1	51.6	55.0	57.2
일본 전기차 판매량	96	141	110	115	139	167	201	242	292
YoY(%)	119.5	46.6	-22.2	4.7	20.8	20.4	20.4	20.4	20.5
일본 전기차 판매 비중(%)	2.1	3.0	2.3	2.3	2.8	3.3	3.9	4.6	5.4
기타 아시아 총합	251	338	379	572	738	917	1,142	1,418	1,771
유럽 전기차 판매량	2,602	3,010	2,945	3,856	4,669	5,790	6,561	7,656	9,071
YoY(%)	15.1	15.6	-2.1	30.9	21.1	24.0	13.3	16.7	18.5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22.3	23.2	22.9	29.0	34.5	41.9	46.6	53.3	61.9
기타국가 전기차 판매량	175	485	1,193	1,577	1,971	2,424	2,909	3,433	4,016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79,475	87,242	89,860	92,556	95,332	97,239	99,184	101,167	103,191
YoY(%)	-1.1	8.0	3.0	3.0	3.0	2.0	2.0	2.0	2.0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0,091	13,689	17,623	20,612	22,830	26,880	30,733	34,931	39,434
YoY(%)	55.0	35.7	28.7	17.0	10.8	17.7	14.3	13.7	12.9
전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	12.7	15.7	19.6	22.3	23.9	27.6	31.0	34.5	38.2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9.30 기준)